

## 언어접촉현상을 통한 게르만어의 발생\*

- 바스크어, 썸어, 인도유럽어의 관계 -

김재명(강원대)

### 1. 서론

일반적으로 독어사나 영어사와 관련된 글에서는, 독일어와 영어는 게르만어에서 파생되었고, 또 이 게르만어는 다시 인도유럽어에서 직접 파생되었다고 서술되고 있다. 이는 August Schleicher의 계통설(Stammbaumtheorie)의 관점에서 입각하여 설명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또한 다른 語族(Sprachfamilie)의 영향은 별로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온 것으로 흔히 설명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게르만어의 어휘는 인도유럽의 어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들 어휘 중에서 최소한 1/3는 인도유럽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심지어 Vennemann(2000, 233; 2003, 519)은 그 비율이 최소한 과반을 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3에 육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강변화동사 시제체계에서의 모음교체(Ablaut)의 조직적인 이용, 자음변이(Lautverschiebung), 액센트의 첫 음절에로의 이동(= Initialakzent) 등 음운론적, 형태론적, 문장론적 여러 분야에서 게르만어는 인도유럽어와는 완전히 다르거나, 이와는 엇나가는 문법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게르만어에서 보이는 이런 비인도유럽어적인 언어현상은 계통설로는 설명되지 않고, 인도유럽어와는 다른 언어들과의 접촉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Vennemann은 게르만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준 비인도유럽어들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밝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가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 언어들에 무엇이, 또 이들이 게르만어의 생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03학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2. 게르만어를 형성시킨 3개 종족

### 2.1. 바스크인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에 유럽에서의 마지막 빙하시기가 끝나자, 유럽 원주민들은 그동안 추위를 피해 은신해있던 프랑스 남부지역으로부터 알프스산맥을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Vennemann (1994a, 1994b, 1995, 1996a, 1996b, 1998a)은 이들 원주민으로서 오늘날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산맥의 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바스크인의 조상인 바스콘족을 상정하고 있다.<sup>1)</sup> 오늘날 극히 제한된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바스크인들이 유럽의 원주민의 후손이라고 믿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한때 유럽 내륙 전역에 퍼져 살았다.<sup>2)</sup>

바스콘인들의 주요한 경제활동으로는 목축을 주로 한 원시농업형태가 기반을 이루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전부터의 사냥, 낚시, 채집경제 등이 계속 영위되었다.

### 2.2. 썸, 햄계의 대서양인(Atlantiker)

2.2.1. 썸, 햄계 민족들은 기원전 5000년경부터 지중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와 대서양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배를 타고 나아갔다.<sup>3)</sup>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항해에 중요한 표지점이 되는 중요 섬, 그리고 강과 바다가 만

- 
- 1) Vennemann은 바스크 지역이 고대 로마시대에 바스콘이라 불렀던 것을 염두에 두고, 바스크족의 조상을 라틴어식으로 바스콘이라고 명명하였다.
  - 2) Vennemann의 이런 단일 유럽 원주민설에 대하여 Trask(1997, 364) 다종족 원주민 설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인도유럽인이 유럽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는 이들이 여러 다양한 종족들을 접촉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명에 나타난 언어로 살펴보면 중, 서부 유럽지역에는 단일 종족이 거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 같다(cf. §3).
  - 3) 햄계와 썸계의 종족간의 친소관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가 갈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 두 종족간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Vennemann (1998e, 2; Vennemann 2003h, 320)은 이 두 종족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Semitidisch란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나는 지역에 식민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항해거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들 거점 지역에는 이들의 언어에서 유래한 지명들이 남아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광물자원을 얻기 위해, 또 교역을 통한 이익을 얻기 위해, 멕시코 난류를 따라서 점차 북쪽으로 항해하여 스칸디나비아 지역에까지 진출하였다. 서부유럽지역 곳곳에서 보이는 거석문화는 이들이 남긴 흔적이다. 이 거석문화는 지중해 서부 연안지역에서 발원하여, 북부 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부터 대서양 서부 연안, 특히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을 거쳐 기원전 3000년경에는 스웨덴 지역에까지 대서양 연안 곳곳에 그 흔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기타 주요 경제활동은 목축, 광업, 상업이었다. 그리고 농업에도 더러 종사하였는데, 특히 과수농업을 중시하였다. 이들은 대서양 연안지역에 국한하여 거주하였기에 Vennemann(1997b)은 이들에게 대서양족(Atlantiker)이란 명칭을 또한 주고 있다. 10세기까지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에 존재하였던 픽트인(Pikten)의 왕국은, 오늘날 이들의 잔존세력으로 간주된다.

**2.2.2. 원주민인 바스크족을 정복하면서 대서양 곳곳에 식민지를 구축하여 높은 문화를 구가하였던 대서양족은 후에 막강한 무력을 앞세운 켈트족의 공격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의 거점지역인 아일랜드섬과 브리튼섬은 유럽대륙에서 건너온 켈트족에 의하여 정복당하면서, 이들의 화려한 문명은 중언을 고한다. 대신에 이들 섬지역에 진출한 켈트족의 언어는 기층어인 햄, 썬계의 언어에 의하여 큰 변혁을 겪는다. 이에 섬켈트어는 인도유럽어의 많은 특성을 잃어버리고 독특한 독자적 언어로 발전하였다가, 나중에 역시 게르만족의 일파인 앵글로색슨족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고대영어가 태동한다. 이 과정에서 고대영어에는 켈트어가 받아들인 햄, 썬계통의 언어특성이 적지 않게 스며들었기에, 오늘날의 영어에는 독일어를 위시한 타 게르만어와는 다른 독특한 문법 현상이 보인다.4)**

4)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Pokorny 1927-30, Vennemann 2001b, 2002a, Vennemann 2003b을 참조.

### 2.3. 인도유럽어인

**2.3.1.** 인도유럽인들은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기원한 농경민족으로서, 일찍이 유럽의 발칸반도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유럽 내에서는 카르파티아 산맥에 둘러싸인 발칸반도 내의 파노니안 분지에 일단 근거지를 두었다가, 6000년 전에 알프스 북부의 중부유럽의 방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5000년 전에는 파리 분지에, 4000년 전에는 스칸디나비아지역에 도달하였다. 주 경제활동은 농업 내지 목축을 겸한 농사활동이었다.

기원전 4000년대 중반이 되면, 유럽대륙은 큰 변혁을 겪는다. 자연적인 인구증가로 인구과밀화현상이 생겨서, 지금까지의 강변지역에만 국한된 곳만으로 거주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계곡보다 높은 위치의 언덕이더라도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예를 들면 샘이 발원하는 곳에도 거주지역이 생겨나게 된다. 또 지역적으로 문화적인 차별화가 생기면서 교역을 위한 상업이 발달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수요를 각기 충족하려는 노력이 생긴다.

이러한 때에, 기후 변화로 한동안 온화하였던 유럽이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럽의 북부지역이 그러하였다. 또 일부 해안지역이 침강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경작자들이 자신의 농토를 잃고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무력을 갖춘 군사집단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한다. 벌써 오래 전부터 유럽 내륙은 인구과밀화로 새로운 농토의 수요는 끊임없이 증대되는 반하여, 질 좋은 농토의 신규 공급은 달리고 있었다. 이에 농부들은 점점 자신의 농토를 요새화 하여 굳건히 방어하면서, 외부에서 새로운 농토를 얻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회전체는 이미 군사화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인도유럽인들로 하여금 당시 원주민이었던 바스콘족을 몰아내면서 정복의 길로 나서게 한 것이다.

**2.3.2.** 인도유럽언어 계통은 가장 연구가 많이 수행된 언어그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유럽어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Gimbutas(1970, 1991), Mallory 1989) 등은 인도유럽어가 약 6000년 전에 러시아의 흑해 북안 지역에서 유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Renfrew(1987)를

위시한 일련의 학자들은 약 10000년 전에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농업을 발생시킨 이들을 인도유럽어족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개의 유력한 이론 중에서, 최근에는 후자의 것에 더 큰 무게가 두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전자는 인도유럽인의 주체를 유목 기마 민족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쉽게 타 종족을 정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주민족이 아니라서, 정복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정복자는 피정복자에 비해 항상 소수 그룹이다. 따라서 소수의 그룹이, 그것도 곧 그 지역을 떠나간 사람들이 비록 무력에 의해 다수의 종족을 한 때 지배했다라도, 이들의 언어가 주체를 이루면서 새로운 언어를 형성시킬만한 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복된 정복을 완전히 말살하거나, 극도의 소수그룹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한, 이들의 언어가 새로운 언어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소수그룹이 사용하는 상층어가 아닌 다수 그룹이 사용하는 기층어가 중심역할을 한다(2.1).

농경경제는 채집경제 내지 유목경제에 비해 여러 이점이 있어서 차츰 후자를 구축하게 되었다. 우선 농경을 통하여 생산물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모여 살 여건이 마련된다. 그리고 채집경제인이나 유목민족들은 이동성인데 반하여, 농경인들은 정주성이다. 이들은 먹고 남은 여유식품들을 저장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고도 기술의 개발, 사회의 계층화, 권력의 집중화, 직업군인화 등의 문화가 태동된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문명상의 우월함을 이용하여 다른 문명권을 압도하게 되면서, 이들의 언어는 다른 언어들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가축의 사육화에 따른 질병은 집단 거주하는 농경민에게도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는 이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다. 반면에 채집경제인들이나 유목민들은 이들 질병에 처음 접하게 되면, 면역성이 없는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절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그들의 언어도 사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인도유럽인의 농경민족 기원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5)

5) Gray/Atkinson(2003)은 최근 Nature Bd. 426에 발표된 논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

### 3. 언어접촉의 유형

3.1. 상이한 언어를 가진 두 종족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 언어 접촉유형은 다음 3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 a) 상층어(Superstrat)
- b) 대등 접촉어(Adstrat)
- c) 기층어(Substrat)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정복하였을 때, a)의 경우는 정복자의 언어이다. c)는 피정복자의 언어이다. 대개의 경우 피정복자는 다수이고, 정복자는 소수이다. 따라서 이들 두 언어가 충돌하여 새로운 언어가 생성될 때에는, 대체로 다수가 사용한 기층어가 음운론적인 측면과 문장론적인 측면에서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반면에 상층어는 어휘적 측면에서 우세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피정복자는 정복자의 언어의 습득은 빠른 출세의 지름길이기때문에, 이들은 상층어의 어휘를 가능한 많이 습득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두 종족 간에 대등한 관계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들 언어간의 관계는 b)에 해당한다. 이 때에는 새로운 언어 생성과정상 원칙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교류가 두드러진다. 이때 어느 쪽 언어의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두 종족 중에서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3.2. 세 종족의 언어들이 융합하여 게르만어를 새로이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바스크어는 항상 기층어 내지 대등 접촉어의 위치에 있었다. 켈트, 켈트계의 언어는 대서양 서안 지역에 국한하였지만, 바스크어에 대해서는 상층어의 역할을

---

는 84개의 언어와 3개의 사라진 언어에 대해 진화생물학에서 개발된 컴퓨터 분석법을 통해서 “아나톨리아 이론”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유럽어는 약 9800년에서 7800년 사이에 분화되어 나온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였고, 한 때는 일부 인도유럽어족에 대해서도 그러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들 두 종족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대서양 서안 지역에 국한하였지만, 인도유럽인이 이미 진출하였던 유럽 중북부 지역을 한때 식민지화하여 자신들의 무역 교두보 삼았다. 그러나 후에 이들의 중심 거점이던 아일랜드와 브리타니섬이 인도유럽어의 일족인 켈트족에 의하여 무력으로 정복당했을 때는, 이들의 언어는 인도유럽어에 대한 기층어였다.

#### 4. 지명

4.1. 원시고대인들의 거주지는 대체로 물가에 있었다. 이는 강이나 내의 근처에서는 식수 획득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동이나 운송, 교역 등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명에는 강, 호수, 내, 계곡 등 물과 관련된 명칭이 많다.

유럽의 원주민이었던 바스콘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에 있는 곳곳의 강, 호수, 산에다가, 특히 자신들의 이동을 위한 중요 방향지표에는 그 지형의 특성에 상응하는 보통명사를 부여하였다. 즉 물이 흐르는 곳에는 “강”, “내”를, 산을 파고들며 흘러가는 물길에는 “계곡” 등을 부여하는 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붙여진 지명들은 알프스북부지역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언어학적 기록물이다. 반면에 항해에 능숙하였던 켈트족의 대서양족들은 대서양 서안의 중요 항해표지점에 자신들의 단어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특히 강이 바다에 진입하는 지역, 중요 섬, 해안, 곳이 그 대상이었다.

인도유럽인은 이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주인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약간 변형시켜 사용하였다.<sup>6)</sup> 따라서 지명에 대한 언

6)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지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a) 기존 명칭을 이용하되, 형태는 정복자의 언어 음운규칙에 따라 변형된다.

z.B. Londonium > London, Colonia > Köln

b) 기존 지명의 의미에 맞는 단어를 자신의 언어에서 찾아내 대치한다.

z.B. kelt. Bannovalium > ac. Horneccastre > Hornecastle

어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기록물 이전의 언어자료를 찾아낼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선사 및 고대 유럽의 언어접촉 현상을 알아낼 수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 4.2. 바스크에서 나온 지명

4.2.1. 1950년대에 H. Krahe는 유럽 내륙 지명의 명칭들을 그 언어구조나 분포 상에서의 측면에서 상세히 조사하였다. 그는 이들 명칭들이 인도유럽인들이 부여한 것으로 보아서, 이 명칭들의 어원을 모두 인도유럽어의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명칭들은 여러 측면에서 비인도유럽어의 특성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즉 교착어의 언어구조, 첫음절에 위치한 액센트, 모음에서의 장음과 단음의 구분이 없는 현상(\*is-/\*eis-, \*ur/\*aur), 모음 a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등이 그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인도유럽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sup>7)</sup> 그런데 이런 언어적 특성들이 바스크어에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Vennemann이 이들 지명이 바스크족의 조상인 바스크족에 의해 명명되었고, 따라서 이들이 유럽의 원주민이었다고 보는 연유가 여기 있다.<sup>8)</sup>

---

*kelt. (banno- „Sporn (vom Land)*

한밭 > 대전(大田).

c) 기존 지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명칭을 멋대로 부여한다.

z.B. etrusk. Felsina > kelt. Bononia > Bologne

Chemnitz > Karl-Max-Stadt > Chemnitz

d) 기존 명칭을 형태상, 의미상 변형시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

z.B. kelt. Glewum > ae. Glawanceaster > Gloucester

kelt. Venta > ae Wintarceaster > Winchester

ae. ceaster „Burg, Stadt,,

- 7) 유럽의 지명에서, 모음, 특히 a-로 시작되는 것이 아주 많다. 그런데 바스크어에서 전체 어휘의 1/6이 모음 a-로 시작되고(Vennemann 1994b, 255f; Vennemann 1998a, 132). i-, -u 등으로 시작하는 단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인도유럽어에서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휘는 극히 적다.
- 8) 그리고 시기적으로 인도유럽인이 아주 늦게 진출한 유럽 남서부지역인 스페인이나 프랑스 지역의 지명에서도 이런 언어적 특성이 역시 보인다. 이에 유럽지명의 어원을 인도유럽어에서만 찾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2.2.** 바스크어에서 기원한 지명의 실례를 몇 개 들어보자.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 Ebrach라는 마을이 있다. 이는 ‘Eber + Ach’의 복합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부분은 바스크어의 \*Ibera “Fluss”가 \*Ebera로 바뀐 형태가 계승된 것이다. 그런데 뒷부분은 순수한 인도유럽어의 것이 (cf. gr. aqua “Wasser”). 바스크족이 “강, 내”라고 불린 이 지역으로부터 이들은 이미 오래 전에 켈트족과 로마제국인에 의해 쫓겨 난 상태였다. 그래서 바이에른족이 로마제국 군대를 압박하면서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들은 바스크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들은 바스크족들이 아주 오래 전에 “강, 내”라 불린 곳에, 자신들의 언어에서 선택한 “강, 내”를 위한 명칭인 Ach, Bach 등을 덧붙여서 새로운 지명을 부여하였다. 이에 Ebrach bzw. Eberbach란 지명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바스크어와 후세에 도착한 인도유럽인의 언어가 함께 결합한 지명으로는 Urach/Auerach, Isebeke/Eisbach 같은 것이 또한 있다. 이들 지명들은 의미상에서 보면 모두 Flussfluss란 이중의 형태를 가진다.

또 바이에른 지역에 Eisbach란 명칭을 가진 많은 개천이 있다. 이는 인도유럽어에서는 어원이 찾아지는 얼음(Eis)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명칭을 가진 지역이 근처 지역보다 특별히 기온이 낮은 지역이 아니다(Vennemann 2003d, 769 §24.5.3.1). 이는 다음과 같이 바스크어에서 그 어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vask. \*isa “Wasser, Gewässer”

bask. iz- “Wasser, Fluss, Gewässer”

즉 Eisbach의 앞부분 Eis-는 바스크의 \*isa-의 두음 i가 인도유럽인들에 의해 장음으로, 즉 i로 발음되어 게르만어에서 ‘i > ei’로 바뀌어 나타난 형태이다. 따라서 이 명칭도 의미상에서 앞서의 Ebrach와 같은 Flussfluss란 이중의 미형태를 보인다.

바스크에서의 어원과 연관된 지명은 유럽 곳곳에도 흔히 보인다. 우선 문헌을 관통하고 있는 Isar강을 살펴보자. 이 명칭은 바스크 지방에 있는 Izura란 강과 형태상, 의미상 완전 일치한다. 왜냐하면 이 명칭은 바스크 시기에는 \*Isar-a로 재귀되기 때문이다. 바스크어에서 끝의 모음 -a는 오늘날 정관사의 기능을 보이는 접미사다. 따라서 이 강의 명칭은 원래 ‘der Fluss (바로 그 강)’이란 뜻을

가진 일반명사에서 나온 것이다. 문헌의 Isar도 원래는 바스콘인들이 “강”이라고 불렀던 것을 후에 이 지역에 진출한 바이에른인이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한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명칭은 Isura, Isana, Isala, Isandra 등 알프스산맥 이북 지역에서 아주 흔히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Isère, 벨기에에서 Yser, 네델란드에서 Ijssel, Ijsendoorn, 영국에서 Ure(< Isura) 등이 강이나 내를 위한 명칭도 보인다. 이밖에 독일의 Isebeken in Dtl., Ismaning Eisbäche, Eisenbäche, 이탈리아 반도의 Isella, Isasca, Iseste, Isarcus, 사르디니아 섬의 Riu Isalle, 프랑스의 Isigny(< Isinicacum) 등도 모두 이와 연관된 명칭의 지명임에 틀림없다(cf. Vennemann 2003g, 129 §5.5).<sup>9)</sup>

#### 4.3. 대서양쪽(Atlantiker)에서 나온 지명

**4.3.1.** 오늘날 근동에 중심을 둔 햄, 썸계의 민족은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대서양에 진출한 후에, 스칸디나비아반도에까지 자신의 세력권 안에 두었다. 이들은 항해기술이 뛰어나서, 배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나 진출하였다. 즉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강이라도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진출하여, 그곳 원주민들과의 교역을 통한 이득을 꾀하였다. 썸계의 페니키아 상인들의 활동은 이미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아무리 먼 지역이라도 배를 타고 도달하여서, 이들의 언어는 대서양 해안과 그 연안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은 자신들의 항해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형적 특성을 가진 곳, 즉 만, 굽, 해안 절벽,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에 그 지형적 특성에 걸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자신들의 항해지표로 삼았다(1.2).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물자가 있는 지역을 식민지로 하여 교역의 교두보로 삼으면서, 이곳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명칭을 붙였다. 아일랜드와 브리타니카의 명칭은 이 과정에서 생겼다.<sup>10)</sup>

9) Pokorny(1959, 299ff)는 이들의 인도유럽어의 어원으로 ie. \*eis-, \*is- “sich heftig bewegen, eilen”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의 die Isar 등 이곳에 제시된 강들의 대부분은 완만하게 흐르고 있다.

10) 예전에 아일랜드섬과 브리타니카섬 주변에서는 각기 구리와 주석이 많이 났다. 당시는 청동기시대라서 구리와 주석의 수요가 많았다. 이에 이곳을 대서양쪽이 식민

4.3.2. 영국 브리타니카섬 남부와 프랑스 북쪽 해안사이의 영불 해협지역에 Solent란 일련의 섬들이 늘어서 있다. 이 섬들의 해안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바다 속에서 불끈 튀어 오른 형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운항하는 선박들에게는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명칭은 다음처럼 헝, 썬계의 언어에 나타난 어원 및 단어와 연관되어진다.

sem. \*s-l'-m (\*Sol'im) "Klippe, Felsen" + \*ti'- "hervorragend"  
 hebr. sela' (Arab. sal') "Felsen"  
 berber. tVy- "übertreffen, hervorragen"

즉 이 바위투성이로 된 이 섬들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바다위로 우뚝 솟은 바위투성이 섬들'이란 명칭을 준 것이다. 이들 섬들은 헝, 썬계에게는 당시 중요한 항해지표가 되었다.

그리고 노르웨이 서쪽해안에서 영국 스코틀랜드 동북 해안사이에 역시 바위투성이인 Solund란 섬들이 늘어서 있다. 이 역시 다음에서 보듯, 위의 영국의 섬들과 똑같은 어원에서, 똑같은 언어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olund < \*s-l'-m + \*ti-

단 이곳의 단어 말미가 d로 나타나는 것은 베르너법칙 때문에 "t > d"의 음운변화를 거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명도 어원의 의미상에서나 형태상에서 영불해협의 그곳과 완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1)</sup>

이들 섬들의 명칭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어순에 있다. 즉 이 명칭은 '명사+형용사'의 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헝, 썬어의 특징이다. 인도유럽어는 '형용사+명사'의 구조로서 수식당하는 것이 수식하는 것의 뒤에 위치한다. 이런 문장론상의 특성에서 이들 지명이 헝, 썬계의 사람들에 의해 붙여졌음을 알려 준

지로 삼아서 이곳에서의 광물자원을 반출하였다. 이 두 지역의 명칭은 각기 헝, 썬어에서 구리나 주석을 가리키는 단어와 잘 연결 된다(cf. Vennemann 1998c).

11) 이와 관련한 지명은 다음과 같이 그리스와 라틴어에서도 찾아진다.

gr. Solóentia (< \*sol'ti), Solouentia (< \*sol'imti)  
 lat. Solentia/Selunto

다(cf. 7.3).<sup>12)</sup>

## 5. 어휘

### 5.1. 바스크어에서 들어온 어휘

5.1.1. 바스콘인은 인도유럽인에게나 대서양쪽에 모두 피정복인의 신세였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는 이들에게 모두 기층어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유럽의 원주민으로서 인도유럽인과의 교류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휘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게르만어로 녹아 들어갔다. 특히 Vennemann(1984, 1994b, 1995, 1996a, 1997a, 1998e, 2000, 2003c)은 게르만어에서의 야생동물이나 야생식물의 명칭의 상당수가 바스크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게르만어에 나타나는 야생식물의 많은 명칭이 바스크어의 그것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bask. burkhi/burki : dt. Birke

bask. agin : dt. Eiche

bask. aspil "Elsbeerbaum" : dt. Espe

bask. altz : dt. Eller/Erle.

그리고 야생동물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Urochs의 Ur-는 바스크어의 다음 어원과 연결된다.

12) 일부 인도유럽어에서도 '명사+형용사'의 구조를 보이는 언어가 있다. 즉 불어에서는 '형용사+명사'보다는 '명사+형용사'의 구조가 더 일반적이다. 그리스에서도 후자의 구조이다. 또 바스크어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구조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이들 언어들이 헝, 썸계의 언어들과의 접촉과정에서 받아들여진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변언어와의 접촉과정에서 문장구조가 바뀌는 현상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지역의 아카드어나 이티오피아의 암하르어에서도 보인다(cf. Vennemann 2003b).

vask. \*ur “Wasser”

bask. ur “Wasser”

즉 유럽의 야생들소는 ‘Wasser + Ochs (물소)’라는 원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Eisvogel(물총새)는 Eis(얼음)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이 Eis-는 바스크어의 다음 어원과 연결된다.<sup>13)</sup>

vask. \*is- “Wasser”

bask. iz “Wasser”

또 Salamander(도롱뇽)은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도 lat. salamandra, gr. σαλαμανδρα의 형태로 나타나서 아주 오래 전에 생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단어 형태는 다음처럼 바스크어와 연결된다.

vask. \*sal- “Wasser” + am(a) + \*and(e)ra “junges Weib”;

여기에서, 가운데의 -am(a)는 명사에 붙인 접미사다. 즉 이 동물의 특성을 나타낸 ‘물에 사는 숙녀’란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sup>14)</sup>

**5.1.2.** 앞서의 ‘물의 처녀’라는 의미를 가진 도롱뇽에서 보이는 바스크어의 andra “junges Weib”는 여자의 이름으로도 많이 나타난다. 즉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와 레슬링 결투를 벌인 Antaios의 딸 또는 부인으로 알려진 Andriosoi란 여자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원래 그리스어의 것이 아니었음은 두 개의 모음 o사이에 나타나는 s가 입증한다. 왜냐하면 고대그리스어에서 모음 사이에 위치한 자음 -s-는 음운변화로 나중에 예외 없이 -h-로 바뀌기 때문이

13) 여기에서 어두에 장모음 ei가 나타나는 것은 모음 상에서 장음과 단음의 구분이 없는 바스크어 bzw. 바스크어의 특성 때문이다. 즉 장모음 i는 게르만어에서 ei의 복모음으로 변한다(cf. Vennemann 1996a u. 1997a).

14) Sal- “Wasser”는 강의 명칭으로 유럽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z.B. Sala, Salia, Salma, Salamanca, Salona, Salic.

다(cf. Rix 1976, §89). 따라서 이는 외부 언어에서의 차용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형태 및 의미상에서 이에 잘 상응하는 것이 바스크어의 어원에서 발견된다. 우선 이 이름의 구조형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vask. \*andre “junges Weib, Mädchen” + \*oso “ganz, vollständig” + i .

여기에서 어간 말미의 모음 i는 접미사로서 정관사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이 복합어의 의미를 분석하면, ‘완전하고 흠 없는 젊은 여인’, 즉 슯처녀를 가리킨다. 이런 해석이 타당함을 오늘날 바스크어에 나타나는 neskaso가 보여준다. 역시 슯처녀를 뜻하는 이 단어는 다음처럼 분석된다.

bask. neska “Mädchen” + oso “ganz, vollständig”.

바스크의 \*andre가 보이는 의미는 그리스 전설에 역시 나타나는 다른 여자들의 명칭에서 또한 엿볼 수 있다. 카시오피아의 딸로 나중에 페르세우스에 의하여 구출된 이티오피아의 왕녀 Andromeda의 이름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보인다.

vask. \*andre + \*med + a

가운데 부분 med-의 형태는 오늘날 바스크에는 나타나지 않은 단어이나, 라틴어에 나타나는 동사 medērī “heilen”에 근거를 두면, 예전에 바스크어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형용사 \*med- “ganz, vollständig”와 이에서 파생된 동사가 존재하였으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리되면 이 이름 역시 Andriosoi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단어 끝의 모음 a는 역시 정관사의 기능을 갖은 지시어다. 또 트로이의 전쟁에서 미래를 예시하는 능력을 가졌던 Cassandra는 다음처럼 분석 된다:

vask. \*kast “Quelle” + \*andera “junges Weib” + a

즉 ‘(예지의) 썸을 지키는 여신’이란 뜻을 보인다(cf. Vennemann 1997, 901 Anm.25; Vennemann 1997a, 885f).

## 5.2. 햄, 썸계 언어에서 들어온 어휘

**5.2.1.** 황소(Stier), 염소(Geiß), 수돼지(Eber) 등 가축화된 동물들과 이에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썸계통의 언어와 연결됨을 본다. 예를 들면 말편자(Huf)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특이한 것은 햄, 썸의 언어와 관련된 어휘들은 높은 문화의 산물과 관련된 점이다. 이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구가하던 이들 산물이 피지배계층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명칭도 함께 들어왔기 때문이다. 반면에 야생 동식물의 명칭은 기저어로서 피지배계층이 사용하던 언어에서 나왔다.

**5.2.2.** 군대체제를 나타내는 상당수 어휘들이 썸계의 언어와 연관되어진다. 예를 들면 독일어의 Volk(민중)은 햄, 썸계의 plC(plh, plg) “teilen, spalten”과<sup>15)</sup> 아라비아어의 falaha “[den Boden] spalten, pflügen, Pflüger” 등과 연결된다.<sup>16)</sup> 즉 이 단어는 원래 농사를 짓기 위하여 토지를 나눈 후에(= teilen), 갈고 쟁기질하는(= pflügen) 것을 뜻하였다. 이 단어의 원 뜻은 독일어의 Pflug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는 형태상 Volk와 잘 연결된다. 즉 두음과 말음의 자음들에서의 게르만어의 자음변이를 고려하면, 두 언어의 연관성이 뚜렷하다. 이 단어는 원래 부대단위를 나타내는 군대용어였다가, 후에 일상어에까지 확대 사용되었다.

**5.2.3.** 또 사회제도와 관련된 명칭에서도 햄, 썸계의 영향이 보인다. 예를 들면 독일어 Sippe(씨족)란 명칭도 썸계의 šph “Sippe”와 관련되어진다. 즉 카르타고인들이 사용하던 푸니시어의 šph “Sippe”, 히브리어의 mi-špaḥa “Stamm, Familie”의 형태와 잘 맞춰진다.<sup>17)</sup> 이렇게 썸어의 이 단어는 게르만어에서

15) C = Consonant(자음).

16) sem. \*p > arab. f

17) 히브리어의 mi-špaḥa “Stamm, Familie”의 앞의 mi-는 접미사에 불과하다. 이것이 중세독일어 시대의 유대인들 간에 사용되던 이디시어(Jiddisch)에서의 Mischpoche

\*sipjō의 형태로 받아들여져, 원래 게르만어가 갖고 있던 \*kunnja “Sippe, Familie”와 경쟁관계를 이루며 사용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는 라틴어에서 차용된 familia에서 나온 Familie에 의하여 구축된다.

귀족을 나타내는 독일어의 Adel 등도 역시 썸계에서 이끌어진다. 다음의 썸계 계통의 오늘날 언어들에게 아직도 보여지듯, 고대썸어의 sem. \*Tl, “fest verwurzelt, Adel”의 원래 뜻은 “확고히 뿌리박은 계층”, 즉 지배계층을 뜻하였다.

hebr. 'šyly, šilê “die Edlen”

ar. 'atala “it hat root/a foundation, it was firmly rooted”

ar. 'atālu “glory, honour, dignity, nobility”

여기에서 “고귀한”, “귀족적인” 의미로 발전한 것이다. 이 단어는 후에 영어에서는 불어에서 전래된 nobility에 의해 대체된다.

이밖에 바다와 항해에 관한 것, 문화생활과 연관된 일상생활 도구나 명칭 등에서도 햄, 썸계와 연관된 어휘들이 다수 보인다.<sup>18)</sup>

## 6. 액센트의 첫 음절로의 고정화

6.1. 인도유럽어의 액센트는 원래 같은 단어라도 한 음절에 고정되지 않고, 문법적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freier Akzent).<sup>19)</sup> 그러나 게르만어에 들어서면, 같은 단어 내에서는 액센트가 항상 첫음절에 고정된다. 이를 ‘액센트의 첫음절 고정화현상(Initialakzent)’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

---

형태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독일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18) 이에 대한 상세한 예는 Vennemann 1984; Vennemann 1995, §7; 1997a, §3; 1998e, §3.1 등 참조.

19) 이러한 현상은 인도유럽어의 여러 언어에서 아직도 보인다.

lat. Róma “Rom”; Románuš “der Römer (Nom. Sg.);

Romanórum “der Römer (Gen. Pl.)”

gr. trápez “der Tisch”; trapézēz “des Tisches”



바꿈은 어찌 생긴 것일까?

**6.2.** 바스크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교착어이다. 따라서 ‘어간+접미사+(지정사)’로 구성된 단어에서 액센트가 어간에 고정되어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스크어의 조상어인 바스콘어에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단 어간이 다음 절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상황에 따라 첫음절, 또는 둘째 음절에 액센트가 위치하는 단어가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강세는 항상 같은 음절에 고정되어 있다.<sup>20)</sup> 게르만어에 들어서서 다른 인도유럽어와는 달리 액센트가 첫음절에 고정되는 현상이 갑자기 생긴 것은, 이것이 기저어인 바스콘에서의 액센트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cf. Vennemann 1994b, §8.4; 1995, 45; 2003c, 528ff).<sup>21)</sup>

## 7. 강변화동사의 모음교체

7.1. 모음교체는 인도유럽어의 많은 언어에도 나타난다.

gr. lego “ich sage” - logos “Wort”

lat. tego “ich decke” - toga “Kleidung”

그러나 게르만어처럼 문법상에서 조직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특히 게르만어 강변화동사에서는 다른 인도유럽어에서와는 달리 이 모음교체가 시제체계를 구분하는 수단에 조직적으로 이용된다.

engl.	sing	sang	sung
dt.	werfen	warf	geworfen

20) 이에 대하여는 Hualde(1993, 1995) 참조.

21) 액센트가 첫음절로 고정되는 현상은 게르만어 외에 킬트어, 이탈리아어, 에트루리아에서도 일어난다. 이들 4개 언어는 한때 서로 이웃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게르만어 강변화동사의 절대 다수가 어원상 인도유럽어와 연결되지 않는다.(Vennemann 2000, 252f; 2003c, §17.2.5.)에 의하면, 3급에 속하는 120개 강변화동사의 어원을 인도유럽어에서 찾아보아 다음의 결과를 얻고 있다.

- a) 54개(45%)의 어원은 인도유럽어의 그것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 b) 36개(30%)는 인도유럽어에서 그 어원이 찾아지지 않는다.
- c) 15개(12.5%)는 인도유럽어와의 관련성은 보이나, 확실치 않다.
- d) 15개(12.5%)는 인도유럽어에서 어원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겨우 12.5%에서만 확실하게, 넓게 잡아도 인도유럽어와 연결되는 것은 25%를 넘지 못한다. 그렇다면 게르만어 강변화동사의 상당수는 비인도유럽어에서의 차용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선 아래와 같이 어간에 자음 p를 갖는 동사들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게르만어 음운체계에서 무성폐색음 p는 나올 수 없는 자음이기 때문이다.<sup>22)</sup>

- Kl.I: grīpan “greifen”, slīpan “gleiten”, wīpan “winden”
- Kl.II: sleupan “schlüpfen”, dreupan “triefen”, sūpan “saufe”
- Kl.III: krimpan “(ver)krmäpfen”, werpan “werfen”
- Kl.IV: drepan “treffen”
- Kl.V: plegan “pflegen”
- Kl.VI: lapan “lecken”, skapjan “schaffen”, stapjan “schreiten”
- Kl.VII: slēpan “schlafen”, swaipan “winden”, hlaupan “laufen”,

7.2.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러한 모음교체를 이용한 강변화동사에서의 시제체계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인도유럽어가 외부 언어와의 접촉에 의해 받아들인 현상이었을 가능성

22) 인구어에서 유성폐색음 \*b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것이 게르만어에서 발전되어 나온 무성폐색음 \*p가 게르만어 음운체계에 일반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cf. Bomhard/Kern 1994, 67; Gamkrlidze 1989, 120 Anm. 2; Hamp 1989, Swiggers 1989). 이에 게르만어에서 p를 보이는 단어들은 순수한 인구어 단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언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높다.<sup>23)</sup> 그렇다면 게르만어의 생성과정에서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언어는 어느 것일까?

이렇게 게르만어에서만 모음교체가 문법체계에 이용되게 한 근원을, Vennemann (2000, 252)은 썸계통의 언어에서 찾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언어들의 모든 단어에서는 자음으로 구성된 어간구조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각 자음 사이에는 모음의 형태들이 자유롭게 삽입되어 전형적인 모음교체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 강변화동사는 어원상에서 썸계통의 언어와 연관되고 있다. \*dragan “tragen”(Vennemann 2002c), \*plegan “pflegen”(Vennemann 1998b, §2), \*metan “messen”(Vennemann 1995, §7.23), \*wakan “wachen”(Vennemann 1997a, §3.3.1) 등이 그 예이다.

## 8. 20진법

8.1. 인도유럽어의 수사는 10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햄, 썸계의 언어는 60진법을 이용한 수사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인도유럽어도 60진법의 영향을 보이는 숫자로 11과 12가 있다.

	11	12
germ.	*ein-līb	*twā-līb
got.	ainlif	twālif
ahd.	einlif	zwelif
ae.	en(d)leofan/ellefan	twelf
nhd.	elf	zwölf

여기서 게르만어의 \*līb-는 “남은(übrig sein)” 것이란 뜻이다.<sup>24)</sup> 즉 11에선

23) 왜냐하면 일부 동사는 강변화로도 약변화로도 나타나는가 하면(z.B. ahd. bringan), 같은 동사가 게르만어 내에서도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또 \*standan “stehen” 같은 동사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 \*gangan “gehen”처럼 K1.VII에 속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K1.VII에 속한다.

24) 오늘날 이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여 계승되어 오는 단어로 bleiben이 있다. 이것

10을 빼면 하나가 더 남고, 12에선 2이 남음을 단어 형태가 보여준다. 이는 햄, 썸의 60진법의 영향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수사체계이다. 13 이상의 수부터는 ‘drei + zehn’ 등으로 다시 전형적인 10진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게르만어에서 60진법의 영향을 받은 흔적은 고트어에서 또한 나타난다. 고트어의 20에서 60까지는 1단위의 숫자에 -tig란 접미사가 붙여져 만들어진다. 그런데 70에서 90까지는 -tēhund가 붙여져 만들어진다.<sup>25)</sup> 이렇게 60을 경계로 하여 숫자를 표기하는 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60진법을 의식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sup>26)</sup>

독어의 *hundert*와 영어의 *hundred*는 100을 뜻하는데, 스칸디나비아지역에서의 상응한 형태인 *hundrāp*는 120을 나타낸다.<sup>27)</sup> 이는 모피무역을 위하여 이곳에 진출한 햄, 썸계의 상인과 상거래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60진법이 받아들여져 생긴 현상이다.

**8.2.** 일부 게르만어 지역에서 20을 표기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다. 즉 영어의 *score*, 독어의 *Stiege*는 20을 위한 또 다른 숫자로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숫자의 한 단위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20진법의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의 *shilling*도 이에 근거해 사용되는 단위이다.

불어에서의 70-90의 표기는 아주 독특하다. 즉 70은 “60 + 10”, 80은 “4 × 20”, 90은 “4 × 20 + 10”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70에서는 60진법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80, 90에서는 20진법에 기반을 둔 잔재였음이 간파된다. 실제로 고대불어에서 20에서 360까지의 수는 철저한 20진법에 의해 표기되었다(cf. Vennemann 1998e, 9; Hanna 2003, 600).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120은 ‘6 × 20’의 형태로 표기된다(cf. Cowan 1984, 482). 그밖에 덴마크어, 알바니아어, 에트루스칸어도 20진법의 체제를 갖고 있다(cf. Vennemann 1998e, 11; Hanna 2003, 534 u. 602).

은 원래 germ. *bi-līban*에서 나온 것으로, *līb*에 접두사 *bi-*, *be-*가 덧붙여져 만들어진 동사이다.

25) 고트어의 *hund*는 100을 나타낸다.

26) 독어에 과일, 달걀 등의 농산물을 세는 단위로 60을 위한 *Schock*가 있다.

27) 이 단어들은 게르만어 \**hund* “100” + *rēd* “raten”의 복합형태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이 20진법의 근원은 어디인가? 바스크어는 오늘날에도 20에서 90까지는 철저한 20진법에 근거한 수사의 체계를 갖고 있다. 즉 30은 ‘20 + 10’, 50은 ‘20 × 2 + 10’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cf. Vennemann 1998e, 10; 2003, 601). 즉 유럽의 여러 곳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남부 Tachelit지역에 나타나는 20진법은 이곳의 옛 원주민이었던 바스콘족이 남긴 흔적이다.

## 9. 어순

9.1. 오늘날 독일어와 영어를 위시한 게르만어의 언어들에는 SVO의 어순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의문문에서는 VSO의 구조를 보인다. 그리고 독일어의 부문장에서는 SOV의 구조를 보인다.

게르만어의 옛날 언어들에서는 오늘날보다는 어순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대독어의 다음 문장들을 살펴보자.

- a) Warun thō hirta in thero lantskeffi wanhante. “Waren da Hierten auf dem Land wachend.”
- b) ih hwirfu in miin hus danan ih uz fuor. “Ich gehe in mein Haus. Danach ich aus ging.”
- c) min tohter ubilo fon themo tiuvalc giweigit ist. “Meine Tochter übel von dem Teufel gewältigt worden ist.”

위의 것들은 모두 서술문장이다. 그런데 동사가 a)에서는 문장의 맨 첫머리에, b)에서는 주어 바로 뒤에, c)에서는 문장의 맨 끝에 동사가 각기 위치하여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떤 어순이 게르만어의 원래 형태일까? 이에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인도유럽어와 게르만어의 기본어순은 일반적으로 SOV인 것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Braunmüller 1982, 118; Lehnert 1984, 150). 덴마크에서 발견된 Gallehus-Horn에 고대 게르만족의 고유문자인 룬문자로 다음의 문장이 새겨져 있는 데에서 이것이 입증된다.

Ek HlevagastiR Holtijar horna tawido  
 “Ich, Hlewagast, Holtes Sohn, das Horn fertigte”

여기에서 동사인 tawido는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여 SOV의 어순을 보인다. 이런 어순은 고트어, 고대영어, 고대독어 등의 문장들에게서 아주 흔한 형태이다. 이렇게 SOV에서 오늘날의 SVO의 형태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9.2.** 오늘날 아일랜드어는 전형적인 VSO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은 기록물이 미미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고대 아일랜드어에서 동사가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이 언어가 본격적으로 기록물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할 때에는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위치하는 문장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cf. Vennemann 2003b, 338). 이로 미루어 보면, 켈트족이 유럽 대륙에 아직 있었을 때에는 이들의 언어는 대체로 SOV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즉 인도유럽어의 어순을 아직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대륙을 떠나 섬지역에 이주하였을 때에는, 이들 언어는 갑자기 VSO의 구조를 바꾸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어순이 완전히 바뀐 것은, 인도유럽어 내부에서의 자연적 발전과정에서 생겼다고보다는 외부 언어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런 영향을 준 언어는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어에 근접한 언어들에게서 기저어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언어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섬나라이다. 따라서 바다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와도 직접적 접촉이 가능하다. 바다는 교류를 막는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역할도 한다. 특히 켈트족이 섬에 침입하기 전의 2000년간 시기는 해상활동이 아주 활발하였다. 이에 당시에 활발한 해상활동을 하였던 VSO를 가진 셈계통의 언어가 기저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켈트족이 나중에 게르만계의 앵글로 색슨족에 의해 정복되면서, 켈트어는 다시 기저어로서 고대영어의 문장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

**9.3.** 험, 셈계의 언어가 문장론적인 측면에서 켈트어를 크게 바뀌게 한 것은 명사와 형용사의 위치 관계에서도 보여준다. 그러나 독어, 영어에서는 일반적

으로 수식어가 수식을 받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z.B. dt. ein großes Haus; engl. the great man). 다른 게르만어 내에서도 이런 어순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이는 옛날 게르만어들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단편적이지만 이와는 정반대 현상이 보인다(z.B. engl. Alexander the great; dt. Alexander der große; Röslein rot). 그리고 불어 등 이탈리아어 언어들에게서는 ‘명사 + 수식어’의 형태가 ‘수식어 + 명사’의 형태보다 더 우세하다. 그런데 이런 ‘명사 + 수식어’의 형태가 햄, 썸어에서 기본적인 형태임은 다음의 아라비아어 언어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ar. ḥār aṣ-ṣīn “das Chinesische Metall” > mlat. karesin

ar. ḥadīd aṣ-ṣīn “das Chinesische Eisen”

여기에서 정관사 aṣ가 명사 ḥār “Metall”, ḥadīd “Eisen”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형용사 ṣīn은 이보다 뒤에 위치함을 볼 수 있다. 이런 햄, 썸어의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는 단어로 독일어의 Imme(꿀벌)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꿀벌의 사육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의 고대독어와 고대영어 형태는 아래와 같다.

ahd. imbi; ae. ymbe “Bienenvolk”

이에 독어 Imme의 두 모음 간 자음들에게서 순행동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다.<sup>28)</sup> 그런데 다음처럼 이와 완전히 상응된 형태가 썸 계통 언어에서 보인다.

\*HVm “Volk” + \*bi- “Biene” > imbi

(cf. ägypt. bj-t “Honigbiene”)

즉 ahd. imbi등은 im “Volk” + bi “Biene”가 복합된 형태이다. 그런데 인도

28) 고대 아일랜드어는 이에 상응한 형태로 embed, imbad n./m. “große Menge, Überfluß”가 보인다. 여기에서는 “다수” 등 일반적인 무리란 뜻을 보인다.

유럽어에서 정상적인 어순이라면 ‘bi + im’의 형태가 되어야 할 텐데, ‘명사+형용사’의 구조를 보이는 것은 이 단어가 원래 썸어에서의 차용어였기 때문이다.<sup>29)</sup>

## 10. 결론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유럽의 발칸 반도로 진출한 농경민족은 원래의 원주민이었던 바스콘족을 몰아내면서, 유럽의 중부와 북부지역으로 진출한다. 따라서 인도유럽어는 바스콘어에 대해 상층어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햄, 썸계의 종족은 지중해로부터 지브롤터해협을 빠져 나온 후에, 대서양 서안을 따라 스칸디나반도에까지 진출한다. 그 근거지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위시한 주요 섬들과 대서양 서안 지역이었다. 이들은 당시로서는 고도의 문화를 향유하였기에, 인도유럽어나 바스콘어에 대해 상층어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한 때는 인도유럽어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후에 군사화 된 인도유럽인들이 정복의 길에 들어서면서, 햄, 썸계의 종족은 인도유럽인의 일파인 켈트족에 의해 정복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는 인도유럽어에 대한 기저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 언어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도유럽어를 근간으로 하여 게르만어가 생성되었다.

바스콘어의 영향은 피레네와 알프스 북부 지역의 지명의 명칭과, 야생동식물을 위한 어휘에서 뚜렷이 보인다. 액센트의 처음절로의 이동 및 게르만의 여러 언어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20진법도 이 언어의 영향이다.

햄, 썸어의 영향은 서부 대서양 연안지역의 섬과 만, 곶 등 항해의 주요 지표점이 되는 곳의 명칭에 보인다. 그리고 가축화된 동식물과 고도의 사회구조

29) 꿀벌의 사육화는 고대 이집트 등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기원전 7천년 전의 이집트 Çatal Hüyük 사원에 이미 꿀벌의 사육화를 엿볼 수 있는 벽화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 의하여 꿀벌사육의 방법이 서부유럽지역에 전파되었고, 이와 더불어 이를 위한 명칭도 역시 함께 도입되었다. 인도유럽어 내에도 ‘꿀’을 위한 명칭은 있다 (ie. \*melit-, \*medu “Honig, Honigmet”, got. milip). 그러나 여기에서의 꿀은 양봉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수집된 것이다.



를 나타내는 어휘들에게서 보인다. 강변화동사에서의 모음교체는 SOV에서 SVO의 어순 변경과 더불어 이들의 영향으로 생긴 중요한 문법사항이며, 또 곳곳의 여러 언어에서 엿보이는 60진법의 흔적은 이들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 참고문헌

- Bammesberger, A. (eds.) (2003): Languages in Prehistoric Europe, C. Winter.
- Bomhard, A./Kerns J. C. (1994): The Nostratic Macrofamily, M. de Gruyter.
- Braunmüller, K. (1982): Syntaxtypologische Studien zum Germanischen, G. Narr.
- Cavalli-Sforza, L. L. et al.(1994): The History and Geography of Human Genes, Princeton Uni. Press.
- Cowan, H. K. J. (1984): The Affinities of Non-Celtic Pictish, in: Leuvense Bijdragen 73, 433-488.
- Diamond, J./Bellwood, P. (2003): Farmers and their Languages: The first expansions, in: Science 300 (25. Apr. 2003), 597-603
- Gamkrelidze, Th. V. (1989): Language Typology and I-E reconstruction, in: Vennemann, Th. (ed.), 117-121.
- Gimbutas, M. (1973): Old Europe c. 7000-3500 BC.: The earliest European civilization before the infiltration of the Indo-European peoples, in: JIES 1, 1-20.
- Gray, R. D./Atkinson, Q. D. (2003): Language-tree divergence times support the Anatolian theory of Indo-European origin, in: Nature 426, (27. Nov. 2003), 435-439.
- Gvozdanović, J. (ed.) (1992): I-E Numerals, M. de Gruyter.
- Hamel, E./Forster, P. (2002): Drei Viertel unserer Gene stammen von den Urbasken, in: Spektrum, Mai 41-44.
- Hamel, E./Vennemann, Th. (2002): Vaskonisch war die Ursprache des Kontinents in: Spektrum, 2002 Mai, 32-40.
- Hamp, E. (1989): The Indo-European obstruent features and phonotactic constraints, in: Vennemann (1989), 177-208.
- Hamp, E. (1990): The P-I-E Language of Northern (Central) Europe, in: Marky/Greppin (eds.), 291-310.

- Hanna, P. N. A. (ed.) (2003): Europa Vasconia - Europa Semitica, Mouton de Gruyter.
- Hualde, J. I. (1993): On the Historical Origin of Basque Accentuation, in: *Diachronica* 10, 13-50
- Hualde, J. I./Lakkara, J. A./Trask, R. L. (1995): Towards a History of the Basque Language, J. Benjamins.
- Krahe, H. (1954): *Sprache und Vorzeit*, Quelle & Meyer.
- Lenerz, J.(1984): *Syntaktischer Wandel und Grammatiktheorie*, M. Niemeyer.
- Markey, T. L./Greppin, J. A. (1990): When Worlds Collide: Indo-Europeans and the Pre-Indo-Europeans, Karoma.
- Pokorny, J. (1927-30): Das nicht-idg. Substrat im Irischen, In: *Zs. für celtische Philologie* 16, 95-144, 231-266, 363-394; 17, 373-388; 18, 233-248.
- Pokorny, J. (1959): *Idg. Etym. Wörterbuch*, Francke, 1.Bd.
- Polomé, E. C. (1990): Types of Linguistic Evidence for Early Contact: Indo-Europeans and Non-Indo-Europeans, in: Markey/Greppin (1990), 267-289.
- Renfrew, C. (1987): *Archaeology and language: The puzzle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J. Cape.
- Renfrew, C. (2003): Convergence Theory, and Innovation in Proto-Indo-European: 'Old Europe' as a PIE Linguistic Area. in: Bammesberger/Vennemann (eds.), 17-48.
- Swiggers, P. (1989): Towards a characterization of the P-I-E sound system, In: Vennemann (ed.) 1989, 177-208.
- Trask, R. L. (1997): *The History of Basque*, Routledge.
- Vennemann, Th. (1984): Bemerkung zum frühgermanischen Wortschatz, in: Eroms, H.-W. et al.(hg.): *Studia Linguistica et Philologica*, Fs. für K. Matzel zum 60. Geburtstag, C. Winter, 105-119.
- Vennemann, Th. (ed.) (1989): *The New Sound of Indo-European*, M. de Gruyter
- Vennemann, Th. (1993): Zur Erklärung bayerischer Gewässer- und Siedlungsnamen, in: *SpW* 18, 425-483.
- Vennemann, Th. (1994a): Die mitteleuropäischen Orts- und Matronennamen mit f, þ, h und die Spätphase der Indogermania, in: Dunke, G. E. et al. (hg): *Früh-, Mittel-, Spätindogermanisch*, Ludwig Reichert, 403-426.
- Vennemann, Th. (1994b): Linguistic Reconstruction in the Context of European Prehistory, in: *TPS* 92, 215-284.
- Vennemann, Th. (1994): Der Name der Landeshauptstadt München, in: *Literatur in Bayern* 37, 2-7.

- Vennemann, Th. (1995): Etymologische Beziehungen im Alten Europa, in: *Der Ginkgo Baum* 13, 39-115.
- Vennemann, Th. (1996a): German Eisevogel, Greek halkyōn, English alder, i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Germanic Linguistics and Semiotic Analysis*, vol. 1, 113-145.
- Vennemann, Th. (1996b): P-I-E Toponyms in Central and Western Europe: BID-/BED- and PIT-Names, in: Nicolaisen, W. F. H. (ed.): *Proceedings of the XIXth International Congress of Onomastic Sciences, Aberdeen (Scotland)*, 359-363.
- Vennemann, Th. (1997a): Some West I-E words of uncertain origin, in: Hicky, R./Puppel, St. (eds.): *Language History and Linguistic Modelling*, M. de Gruyter, 879-908.
- Vennemann, Th. (1997b): Atlantiker in Nordwesteuropa: Pikten und Vanen. in: Eliasson, St./Jahr, E. H. (eds): *Language and its Ecology*, M. de Gruyter, 451-476.
- Vennemann, Th. (1997c): Der Kastalische Quell, die Gastein und das Rätische, mit einem Anhang zu Cassandra und Kastianeira, in: Glaeser, E./Schlaefer, M. (hg.): *Gramatica Ianu Artium, Fs. für R. Bergmann zum 60. Geburtstag*, C. Winter, 475-503.
- Vennemann, Th. (1998a): Baken, Semiten, Indogermanen. Urheimatfragen in linguistischer und anthropologischer Sicht, in: Meid, W. (hg.): *Sprache und Kultur der Idg.*, Innsbrucker Institut für Sprachwissenschaft, 119-138.
- Vennemann, Th. (1998b): +plog-/+pleg-, +furh-/+farh-, +folk-/+flok-, +felh-/+folg-, in: Donauser, K./Eichinger, L. M. (hg.): *Dt. Grammatik - Thema in Variationen*, Fs. für H. W. Eroms zum 60. Geburtstag, C. Winter, 246-261.
- Vennemann, Th. (1998c): Zur Etymologie von Eire, dem Namen Irlands, in: *SpW* 23, 461-469.
- Vennemann, Th. (1998d): Biene und Imme. Mit einem Anhang zu lat. apis, in: *SpW* 23, 471-487.
- Vennemann, Th. (1998e): Andromeda and the Apples of the Hesperides, in: Jones-Bley, B.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Ninth annual UCLA Indo-European Conference, LA, May 23-24 May 1997, Washington D.C.*, 1-68.
- Vennemann, Th. (1999): Remarks on some British place names, in: Carr, G. F. (ed.): *Interdigitations, Essays for I. Rauch*, P. Lang, 25-62.

- Vennemann, Th. (2000a): Zur Entstehung des Germanischen, in: SpW 25, 233-269.
- Vennemann, Th. (2000b): English as a “Celtic” Language. Atlantic Influences from above and from below, in: Tristram, H. L.: *The Celtic English II*, C. Winter, 375-398.
- Vennemann, Th. (2001a): Germania Semitica: +aþal- (OE æðel-, G. Adel) 'nobility, in: SpW 26, 189-204.
- Vennemann, Th. (2001b): Structural contact features in Celtic and English, in: Laurel, B. (2001): *Historical Linguistics 1999*, J. Benjamins, 351-369.
- Vennemann, Th. (2002a): On the Rise of ‘Celtic’ Syntax in Middle English, in: Lucas, P. J./Lucas, A. M. (eds.): *Middle English from tongue to text*, P. Lang, 203-234.
- Vennemann, Th. (2002b): Gmc. +drag-, +trek-, Lat. trah-, Gk.  $\tau\rho\epsilon\kappa$ - etc, in: Cavato, F. (ed.): *The linguist’s list: A collection of papers in honour of Alexis Manster Ramer*, 2 vols, München: Lincolnm, II, 437-446.
- Vennemann, Th. (2002c): “Semitic→Celtic→English: The transitivity of language contact”. in: M. Filppula et al. (eds.): *The Celtic roots of English*, Joensuu (University of Joensuu, Faculty of Humanities), 295-330.
- Vennemann, Th. (2002d): “Key issues in English etymology”, in: T. Fanego/B. Mendez-Naya/E. Seoane, (eds.), *Sounds, words, texts and change*, J. Benjamins, 227-330.
- Vennemann, Th. (2002e): Pre-Gmc. +-at- in E. Maiden, G. Magd/Mädchen, Goth. Magaþs, in: *Amsterdamer Beiträge zur älteren Germanistik* 56, 1-16.
- Vennemann, Th. (2003a): Languages in prehistoric Europe north of the Alps, in: Bammesberger/Vennemann (eds.): *Language in Prehistoric Europe*, C. Winter, 319-332.
- Vennemann, Th. (2003b): Syntax und Sprachkontakt: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idg. Sprachen des Nord- westens, in: Bammesberger/Vennemann (eds.), 333-364.
- Vennemann, Th. (2003c): Zur Frage der voridg. Substrate in Mittel- und Westeuropa, in: Hanna (hg.), 517-589.
- Vennemann, Th. (2003d): Volksetymologie und Ortsnamen- forschung, in: Hanna (hg.), 753-802.
- Vennemann, Th. (2003e): Testing the West: Hesperia, Euskal Heria, Europe, Abendland and supporting etymologies, in: Hanna (hg.), 803-819.

- Vennemann, Th. (2003f): Grundfragen der Ortsnamen- forschung, in: Hanna (hg.), 820-855.
- Vennemann, Th. (2003g): Water all over the place: The Old European toponyms and their Vasconic origin, in: Hanna (hg.), 857-870.
- Vennemann, Th. (2003h): Languages in prehistoric Europe north of the Alps, in: Bammesberger/Vennemann (eds.), 319-332.

## Zusammenfassung

### Die Entstehung des Germanischen im Hinblick des Sprachkontakts

Kim, Jai-Myoung(Kangwon Univ.)

In dieser Arbeit wird belegt, dass sich die Entstehung des Germanischen nicht als organische, ausschließlich intern motivierte Weiterentwicklung des Indoeuropäischen verstehen lässt, sondern dass substrale und superstrale Kontaktsprachen, bzw. Kontaktsprachfamilien an seiner Entstehung beteiligt waren, nämlich das mit dem heutigen Baskischen verwandte Vaskonische und das mit dem heutigen Hamito-Semitischen verwandte Atlantische. Als Beweise für nicht-indoeuropäische Kontakte des Indoeuropäischen werden angeführt die Lexik und Strukturmerkmale der Ortsnamen, der große nicht aus dem Indoeuropäischen deutbare Anteil des Wortschatzes, der Initialakzent, die Systematisierung des Ablauts in starken Verben und die Spaltung der Wortstellung. Dabei wird deutlich, dass das Germanische ist substral vaskonisiertes, superstral semitisiertes Indoeuropäisch ist.

[검색어] 상층어, 대등 접촉어, 기층어  
Superstrat, Adstrat, Substrat

김재명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kjaim@kangwon.ac.kr

논문 접수일: 2004. 10. 23  
논문 심사일: 2004. 11. 27